

# 敎藏의 成立과 역사적 변천

## Establishment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Gyojang*

朴 鎔 辰 (Park, Yong-Jin)\*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敎藏의 성립배경과 조성 | <참고문헌> |
| 3. 敎藏의 歷史的 變遷   |        |

### <초 록>

敎藏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동아시아의 불교장소를 수집하여 조성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敎藏의 성립과 그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의의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敎藏의 성립배경은 화엄종 및 천태종으로 선종사상을 융합하는 불교계의 재편과 관련이 있다. 교장 조성은 宣宗대 불교정책의 일환으로, 대장경을 조성한 후 경전의 주석서에 해당하는 章疏를 갖추어 홍법함에 있었다.

의천의 장소 수집은 문종 27년(1073)에 시작하여 선종 7년(1090)에 『교장총록』의 편찬과 함께 일단락되었다. 『교장총록』에 입장된 장소는 一藏으로 갖추었지만 完刊 여부는 분명치 않다. 교장 간행의 현존 자료는 원간본인 동대사의 『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를 비롯하여 3종, 중수본 및 번각본 45종 등 전체 50여 종으로 파악된다.

敎藏의 歷史的 變遷에 대해서는 교장의 용례 분석과 교장의 내용적 연원에 해당하는 자료를 중국의 대장경에 구분 기준으로 적용된 東土聖賢著撰의 성립과 전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교장류의 東土聖賢著撰이 중국 대장경에는 입장되어 전승된 반면, 고려대장경에는 대장과 교장으로 분기하여 전승되었다.

要語: 교장, 신편제종교장총록, 의천, 고려대장경, 속장경

### <ABSTRACT>

The *Gyojang* compiled by the monk Uicheon (1055-1101) were established by the collection of Buddhist scriptures from East Asia. This paper reviewe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Gyojang*.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Gyojang* is first to control Buddhism Scriptures and Commentaries which is related to the centralization of power by arranging them systematically, second to interpret them according to the political and social purpose, as well as to bloom Dharma's talk.

Uicheon's commentary collection began in the Mun-jong 27 (1073) and was completed with the compilation of the *Sinpyeonjejong-gyojangchongnok* in the Seon-jong 7 (1090). The existing commentaries of the *Gyojang* are grasped in all 50 kinds including the *huayanjing-suishuyanyichao* of Todaiji, 45 kinds of a reprint and repair books.

The history of the *Gyojang* is divided into analysis of the usage of the *Gyojang* and the contents of the *Gyojang*. It was examined through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book written by the Sage and the Saints in the East' applied as a classification standard to the Chinese Tripitaka. Tripitaka Koreana unlike the Chinese did not include the commentary. It was divided into two parts of the 'Gyojang' and 'Tripitaka' in the Goryo period.

Key words: *Sinpyeonjejong-gyojangchongnok*, *Gyojang*, Tripitaka Koreana, Uicheon

\* 能仁大學院大學校 助教授(pyj04667@hanmail.net)

■ 접수일: 2017년 3월 6일 ■ 최종심사일: 2017년 3월 15일 ■ 심사완료일: 2017년 3월 24일

## 1. 머리말

敎藏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고려를 비롯한 동아시아 諸國의 불교장소를 수집하여 조성한 것이다. 이 敎藏의 총목록이 『新編諸宗教藏總錄』(이하, 『敎藏總錄』)이며, 초기 연구는 고려대 장경의 속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高麗續藏雕造攷』를 들 수 있다.<sup>1)</sup> 국내의 연구는 『敎藏總錄』의 편찬 의의에 대해 章疏 목록의 효시인 점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敎藏總錄』의 분류체계와 敎藏의 간행에 주목하였다.<sup>2)</sup> 이후 연구는 위의 분류기준을 수용하는 한편 종파별 장소 분류나 綱目的 분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으로 이어졌다.<sup>3)</sup>

『敎藏總錄』의 성립과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의의에 대해서도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최초의 敎藏 章疏의 목록인 『교장총록』의 불교문헌목록사의 가치를 찾기도 하였다.<sup>4)</sup> 『敎藏總錄』 성립의 배경을 고려와 遼의 불경 교류와 외교관계의 가운데 살펴보았으며,<sup>5)</sup> 의천의 사상을 살펴보기 위한 전 단계로서 『敎藏總錄』의 편찬배경과 체재를 분석하고, 기존 연구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편찬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불교사적 의의와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의천의 교장에 대하여는 國家佛敎를 상징하고 국가와 왕실의 관심 아래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하였다.<sup>6)</sup>

본고에서는 敎藏의 造成에 대해서는 『교장총록』의 편찬과 함께 분석하고, 그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교장의 연원과 고려시대 대장경과 교장 인식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敎藏의 연원에 대해서

- 1) 大屋徳成, 『高麗續藏雕造攷』(日本 東京: 便利堂, 1936).
- 2) 金庠基, “大覺國師義天에 對하여,” 『國史上的 諸問題』(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9). ; 『東方史論叢』 개정판(서울: 서울대출판부, 1984). ; 趙明基, 『高麗 大覺國師와 天台思想』(서울: 東國文化社, 1964). ; 鄭駉謨, 『高麗佛典目錄研究』(서울: 論叢刊行委員會, 1990). ; 林屋友次郎, 『海東有本現行錄』, 『佛書解說大辭典』(日本, 東京: 大同出版社, 1975). 국내에서 『교장총록』 분류체계 연구의 효시는 金聖洙, “敎藏總錄 經部分類體系의 分析,” 『圖書館學』 10(1983)이며, 최근 “의천,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영향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58(2014. 6) 등 이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敎藏의 연구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南權熙, “韓國의 大藏經 研究 現況과 展望 - 2000년대를 중심으로,” 『日本에 流通된 古代韓國의 佛敎典籍과 佛敎美術』 발표논문집, 新羅寫經프로젝트國際워크숍(서울: 2012). ; 朴鎔辰,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서울: 혜안, 2011) 참조.
- 3) 朴용진, 『의천 그의 생애와 사상』(서울: 혜안, 2011). ; “高麗 義天撰 『新編諸宗教藏總錄』과 동아시아의 華嚴 章疏,” 『한국학논총』 42(2014. 8). ;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 編纂과 華嚴 및 天台章疏,” 『中央史論』 제22호(2005. 12). ; 서수정,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의 佛敎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 ;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고찰,” 『서지학보』 제31호(2007. 12). ; 임혜경,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찬과 그 의의,” 『韓國史論』 제58집(2012. 12).
- 4) 朴老子,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 編纂, ‘敎藏’ 刊行의 文化史的 意味,” 『史學研究』 58·59합집(韓國史學會, 1999. 12).
- 5) 金英美, “11세기 후반-12세기초 遼와의 佛敎 關係 交流,” 『역사와 현실』 43(2002. 3).
- 6) 朴鎔辰,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 編纂과 華嚴 및 天台章疏,” 『中央史論』 22(2005. 2).

는 불교 주석서의 총집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敎藏에 대해 불교 여러 종파의 주석서 및 교리서 등을 결집한 것으로 三藏의 論藏에 포섭되고 방편상 四藏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智顓의 저술에 대하여 서명을 중심으로 형태적 분석을 하여 '註疏體' 형식으로 특징지었다.<sup>7)</sup> 이는 중국의 諸種 대장경에 적용 가능하나 고려대장경과 교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위의 敎藏의 연원과 관련하여 용어 활용면에서 의천 당대 국내의 '敎藏' 용어 사례를 정리하고 교장의 내용면에서는 교장의 章疏類가 대장경의 중국 찬술류 入藏과 그 상관성을 검토한다. 특히 고려의 대장경 조성에 있어 '大藏과 敎藏'이 구분되는 점은 교장의 역사적 변천에 중요하다. 이는 북송장과 고려장 그리고 고려교장의 入藏目錄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코자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고려시대 교장의 성립이 동아시아불교계에 있어 장소 목록의 효시와 독자성을 확인하는 한편 더 나아가 고려시대 전후기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에 반영된 〈大藏과 敎藏〉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敎藏의 성립배경과 조성

### 2.1 敎藏의 성립배경

의천은 문종 19년(1065) 화엄종의 경덕국사 爛圓에게 출가하였는데, 이 시기는 敎宗의 華嚴宗 등을 중심으로 禪宗을 융합하려는 불교사상이 전개되고 있었다.<sup>8)</sup> 고려초기 이래 교선융합 경향은 의천대에 이르러서는 화엄종 및 천태종으로 선종사상을 융합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불교사상적 흐름 속에서 전개된 敎藏의 조성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의천의 入宋求法表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主上께서 왕위를 이어 서시고 세상을 위해 오시어, 宿世에 菩薩의 因行을 敦篤하게 하심으로 今世에 皇王의 位 받으심을 만나셨나이다. 主上께서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의 바른 敎化를 본받으시고 부처님이 가신 뒤의 끼친 교풍을 밝히시니 聰明한 文思로 온 천하가 광명을 입었으며, 慈悲喜捨의 네 가지 불심으로 온 백성들을 이롭게 하시니 三尊이 의지하여 머무르시고 온 백성이 힘입어 경하하며 기뻐합니다. 문치를 숭상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뿐 아니라 임금의 위엄을 능히 베풀었으며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고 마침내 法王의 영을 널리 퍼셨습니다.<sup>9)</sup>

7) 서대원, “교장의 서명에 대한 시고,” 『書誌學研究』 67(2016. 9).

8) 金杜珍, “제3장 高麗時代 思想의 歷史의 特徵,” 『한국사상사대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38-143.

의천은 1085년 4월 송나라로 떠나면서 불법을 구하기 위하여 떠난다는 표문을 올렸다. 여기에서 의천은 선종의 治國 요체가 佛의 교화를 본받고, 부처의 교풍을 밝히는 佛法爲本으로 증생을 교화하고 혜택을 베풀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칭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의 기록에서 전하는 선종대의 주요 불교 관계 기록은 다음과 같다.

- ① 乙亥에 처음으로 駕幸할 때는 仁王般若經을 받들고 前導하게 하였으니 宋制를 따름이다(『高麗史』 권10, 宣宗 2년 2월).
- ② 辛酉에 王太后가 國淸寺 창건을 시작하였다(『高麗史』 권10, 宣宗 6년 10월).
- ③ 丙午에 왕이 太后를 모시고 三角山에 행차하였다. 庚戌에는 僧伽窟에 행차하였다가 드디어 藏義寺에 행차하고 癸丑에 仁壽寺에 행차하여 行香하였다(『高麗史』 권10, 宣宗 7년 10월).
- ④ 壬申에 王太后가 白州 見佛寺에서 天台宗禮懺法을 長期間 동안 설치하였다(『高麗史』 권10, 宣宗 9년 6월).

선종 2년(1085)에 설행된 불교의례로서의 인왕회는 국왕에게 불법을 付囑하고,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왕경 신앙이었다.<sup>10)</sup> 위의 자료 ①과 같이 국왕의 행차시 『인왕경』을 받들고 앞장서기도 하였고, 또한 빈번하게 仁王道場을 설행한 것은 인왕경 신앙을 통하여 국왕의 권위를 제고한 측면을 반영한다.

한편 의천과 인예태후의 천태종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나타났다. 의천과 태후 그리고 潛邸의 숙종이 천태종에 대한 外護를 發願하였다.<sup>11)</sup> 의천이 송나라에서 귀국한 3년 뒤인 선종 6년(1089) 10월에는 의천 母后인 仁睿太后의 발원에 의해 국청사 신창 공사가 시작되었고, 위의 자료 ④와 같이 선종 9년(1092)에는 백주 見佛寺에서 天台宗禮懺法을 설치하는 등 천태종 관련 불교의례가 설행되었다.<sup>12)</sup> 의천과 관련된 일련의 천태종 개창 시도는 宣宗의 의지가 개입된 불교정책으로 판단된다. 의천이 귀국한 선종 2년(1086) 이후부터 『圓宗文類』를 통한 화엄종의 문류 및 교학 정리,

9) 의천, 『請入大宋求法表』(『대각국사문집』 권5 ; 『한국불교전서』 권4), 534.

“伏遇主上承祚以立 爲世而來 宿敦菩薩之因 現感皇王之位 體佛在之正化 闡佛後之遺風 聰明文思 光被率土 慈悲喜捨 利洽黎元 三尊仗以住持 兆民賴之慶樂 匪唯修文偃虎 克宣人主之威抑亦傳教利生 聿布法王之令.”

10) 朴鎔辰(1999). ; 朴鎔辰, “高麗中期 仁王經信仰과 그 意義,” 『한국중세사연구』 14(2003. 4).

11) 林存, “仁同僊鳳寺 大覺國師碑,”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 (서울: 伽山佛敎文化研究院, 1996), 180-188.

“肅祖在蕃邸 嘗一日同謁太后偶語及之曰 天台三觀最上眞善 此土宗門未立 甚可惜也 臣竊有志焉 太后深垂隨喜 肅祖亦願爲外護.”

12) 이러한 의천의 천태종 개창은 일개 종파의 창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계의 통합을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성립배경과 관련한 내용은 필자의 『의천』(서울: 혜안, 2011)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천태종 개창을 위한 국청사의 始創 工役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고려중기 불교계의 재편은 화엄종을 위주로 한 천태종의 개창에 있었다. 이는 국왕권 강화를 꾀하던 宣宗에 의해 추진된 불교정책이었으며, 동시에 의천의 조력에 의해 추진될 수 있었다.

의천의 敎藏은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조성되었던 것이다. 의천의 교장 조성 동기에 대하여는, 고려에 대장경은 조성되어있지만 경전의 주석서에 해당하는 章疏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교법을 바로 펼 수 없기 때문에, 고려·송·요 등에서 제종의 장소를 모아 1090년 8월에 『新編諸宗教藏總錄』을 편찬하는 한편 敎藏을 조성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敎藏의 조성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昇公의 護法의 높은 뜻을 본받아 그 敎迹을 搜訪하는 것을 나의 임무로 삼아 쉬지 않고 힘쓴 지 이제 20년이 되었다. 이제까지 얻은바 新舊 製撰 諸宗 義章은 사사로이 감출 수 없어 간행하고, 후에 얻는 것이 있으면 또한 따라서 그것을 기록하려 한다. 빠지거나 후에 얻어지는 것은 函帙로 編次하여 三藏의 正文과 함께 오래 전해진다면 내 소원은 다하는 것이다. 때는 後高麗 제13대 宣宗 재위 8년 경오 8월 초 8일 海東傳華嚴大敎沙門 某 敘<sup>13)</sup>

의천은 위의 『교장총록』 서문에서 『開元釋敎錄』의 찬자 智昇의 호법의지를 본받아 章疏를 搜訪하여 모은 新舊 製撰 諸宗 義章을 간행한다고 하였다. 의천은 章疏가 없기 때문에 교법을 바로 펼 수 없음을 인식하고 敎藏을 갖추려 한 것이다. 더 나아가 〈敎藏〉이라는 명칭이 제시된 또 다른 의천의 『代世子集敎藏發願疏』와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를 통하여 교장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 ① 비록 經과 論은 갖추어 있으나, 疏鈔가 빠져서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遼·宋 등지에서 百家의 科敎를 모아 一藏을 만들어 유통케 하고자 합니다.<sup>14)</sup>
- ② 顯宗은 五千軸의 秘藏을 새기셨고, 文宗은 千萬頌의 契經을 새기셨습니다. 正文은 비록 멀고 가까운 데 퍼졌으나 章疏의 경우에는 거의 실추하였습니다. 만약 남아 있는 것을 널리 퍼고 보존하려면 실로(以下 缺落)<sup>15)</sup>

13)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序,” 『대각국사문집』 권1 (『한국불교전서』 권4), 528-529.  
 “輒效昇公護法之志 搜訪敎迹 以爲己任 孜孜不捨 僅二十載于茲矣 今以所得新舊製撰 諸宗義章 不敢私秘 敍而出之 後有所獲 亦欲隨而錄之 脫或將來篇次函帙 與三藏正文 垂之無窮 則吾願畢矣 時後高麗十三葉 在宥之八年 庚午 八月初八日 海東傳華嚴大敎沙門 某 敘”

14) 義天, “代世子集敎藏發願疏,” 『대각국사문집』 권14 (『한국불교전서』 권4), 552.  
 “雖經論而具矣 然疏鈔以闕如 欲以于古于今 大遼大宋 凡有百家之科敎 集爲一藏以流通”

15) 義天,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대각국사문집』 권15 (『한국불교전서』 권4), 553.  
 “顯祖則彫五千軸之秘藏 文考乃鏤千萬頌之契經 正文雖布於邇遐 章疏或幾乎墜失 苟存弘護 寔在(缺落).”

의천은 문종 27년(1073)에 장소를 수집하여 敎藏을 조성할 것을 발원하는 疏文을 올렸다. 이 疏文은 의천이 1090년에 『교장총록』을 편찬한 당시의 序文 내용과 동일하고, 또한 이때 宣宗인 국왕을 대신하여 敎藏을 간행하는 소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의천은 당시를 정법이 쇠퇴하는 시기로 보고 疏鈔를 만들어 세상에 유통시켜 정법을 부지하는 것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인식하였다. 결국 經과 論의 이치를 밝히는 疏鈔를 갖추어 교법을 바로 펴고자, 遼·宋 등 여러 나라의 장소를 모아 목록을 편찬하고 이를 一藏으로 만든 것이 교장임을 알 수 있다.

## 2.2 敎藏의 조성

敎藏의 성립은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록과 그 畵를 함께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찬을 통하여 교장의 성립과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천이 모은 諸宗의 章疏를 一藏으로 갖춘 敎藏의 造成은 문종 27년(1073)에 『代世子集敎藏發願疏』를 올리면서 시작하였고, 36세 되던 해인 선종 7년(1090)에 일단락되었다. 이때 조성한 교장은 의천의 『교장총록』을 통하여 그 규모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교장의 성립에 대하여 장소의 수집과 함께 이루어진 『교장총록』의 편찬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의천은 고려 국내에서 교장의 장소를 수집하는 한편 송에 들어가 장소를 구하였다. 『대각국사의집』의 다음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① 근래 받들어 가지고 온 章疏目錄 1권을 …… 이로써 上人은 법을 전하려는 마음과 도를 배우려는 뜻이 잠시도 잊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 上人은 임금의 후예로 힘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니 이 다음날 능히 간행하고 유포하여 부처님의 진리의 법등을 끊어질 없이 서로 잇게 하고 그 광명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한다면 그 이로움이 넓고 크지 않겠습니까.<sup>16)</sup>
- ② 귀국에서 현행하는 敎乘目錄을 보여 주시고, 이곳의 諸家들이 撰錄한 것을 구했는데<sup>17)</sup>
- ③ 지난번에 보인 귀국의 敎乘數目 가운데 僧叡法師의 注本 7권과 아울러 吉藏, 元曉, 憬興, 玄一, 神雄, 大賢 등 여러 大德들의 저술이 보이는데, 혹 올 봄에 온다면 本朝에서 하사받은 여러 文을 한 곳에 함께 모으고, 그 글을 함께 모아 널리 유통하면 이 또한 큰 공이며 大用을 돕는 것으로 작은 인연은 아닙니다.<sup>18)</sup>

16) 有誠, 『大宋沙門有誠書 二首』 『대각국사의집』 권3 (『한국불교전서』 권4), 571.

“比承示及帶來 章疏目錄一卷 (중략) 以斯足見上人 傳法之心 學道之志 頃食不忘矣 (중략) 上人 王者之後力可及矣 它日如能刊印流布 俾燈燈相續 照耀華宇 則其利博哉.”

17) 淨源, 『大宋沙門淨源書 二首』 『대각국사의집』 권2 (『한국불교전서』 권4), 570.

“所示貴國見行敎乘目錄 仍求此方諸家撰錄者.”

18) 淨源, 『大宋沙門淨源書 五首』 『대각국사의집』 권3 (『한국불교전서』 권4), 572.

위의 내용은 의천이 宋의 화엄종 승려인 有誠과 淨源에게 章疏目錄과 敎乘數目을 전한 것이다. 의천은 고려에 現行하는 章疏를 제시하는 한편 송에 現행하는 章疏의 正本과 鈔本을 요청하고, 교장을 조성하여 간행·유통하려 하였다.<sup>19)</sup> 특히 의천은 입송구법 이전에 宋僧 淨源과 서신을 왕복 하면서 〈敎乘目錄〉을 보내 諸家の 撰錄 章疏를 요청하였다.<sup>20)</sup> 즉 의천은 고려에 목록은 있지만 無本이기 때문에 송의 諸家들이 撰錄한 것을 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천은 입송하여 자료 ③과 같이 淨源에게 敎乘數目을 제시하면서 송에서 現행하는 장소를 수집하였다.

의천은 19세인 문종 27년(1073)부터 敎藏의 조성을 위한 장소의 수집을 시작하였는데, 대장경의 經論은 초조대장경을 조조하여 갖추어져 있었지만, 이러한 경론의 이치를 발명할 疏鈔가 없기 때문에 宋, 遼 등 여러 나라에 있는 古今 百家의 장소를 모아 敎藏으로 조성코자 발원한 셈이다. 현종과 문종대에는 초조대장경의 正藏과 續藏 이 조성되었지만, 고려 傳來의 章疏가 많이 일실된 때였다. 대장경의 조성이 국가적 사업으로 전개되었고, 의천이 주관하였지만 교장의 造成 또한 일개 종파나 개인의 힘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교장의 조성은 10여년 이상 오랜 기간 추진되었다.<sup>21)</sup>

그렇다면 교장의 구성과 내용은 어떠한이었을까. 기존의 다수의 연구성과가 있어 본고에서는 간략히 언급기로 한다. 의천은 고려·宋·遼 등지에서 수집된 章疏를 集錄하여 敎藏을 조성함에 있어 대장경과 같은 함질로 편차할 것을 의도하였고, 그것은 總錄을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이미 언급하였지만 의천은 입송 이전 宋僧과 교류하면서 목록을 통하여 章疏를 수집하였다. 또한 그는 1085년 입송시 求書 目錄으로서 章疏 목록을 작성하여 가지고 갔을 법하며 이를 통하여 章疏를

“昨示貴國敎乘數目 其間有叡法師注本七卷 并吉藏元曉憬興玄一神雄大賢 諸德撰述等文 或來春得至 本朝 賚取諸文 共會一處 同集其辭 以廣流通 茲亦宏功 式助大用 非小緣耳.”

19) 有誠, 『大宋沙門有誠書 二首』, 『대각국사외집』 권3 (『한국불교전서』 권4), 571.

“夙心數年來 採集本宗□ 普及唐五教 諸祖或著述章疏 或講解神□□爲一家傳文 且欲助揚大教 其如文集淪落 難求正本 以此纂集未成 今得上人花嚴傳五卷 又得康藏新傳一卷 足爲龜鑑……圭峯 圓覺大疏 京師未聞有本 錢塘源師及浙右諸方教院 可以尋訪 發明唯識 綸貫花嚴 然序鈔中 略說源由 世闕全本 此嘗搜索 終未遂志 花嚴九會札文印本 與右本小異 雖不成文字 且欲讚揚大法 用結來因 非無愧於作者 并本朝致政張小師 頃在朝日 親製疏詞 命山僧敷演大經一遍 好事者爲之刊石 因此 各呈納兩本 幸冀檢至 神秀法師 花嚴妙理圓成觀三卷 略假一觀朝夕 同傳文 拜納次.”

20) 淨源, 『淨源書第二』, 『대각국사외집』 권2 (『한국불교전서』 권4), 570.

“祖圖所謂馬鳴造論 龍樹釋通 乃縉雲記主 面言心授焉 所示貴國見行敎乘目錄 仍求此方諸家撰錄者 且西聖之言 源乎周派于漢 汪洋于隋唐 滌漫于大宋 而諸師抗宗 略陳四家 所謂澄昭戒律宗 慈恩法相宗 天台法性宗 賢首圓融宗 而各有本宗 義章名號 皆行于代 至若秦什之四聖 晉遠之諸賢 雖有疏記 師資傳授而亡沿襲故 其垂法不成.”

21) 阿彌陀經通贊疏 卷下 刊記, “此慈恩所撰 阿彌陀經通贊一卷者 祐世僧統 於元豐元祐之間 入于中華 求得將到 流通之本也 予助洪願 付於廣教院 命工重刻 自戊辰十月十九日起首 至十二月十日畢乎矣”(大屋德城, 『高麗續藏雕造攷』 (日本: 便利堂, 1937), 59 재인용).

22) 『新編諸宗教藏總錄』의 體裁는 序文,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一 海東有本見行錄上,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二 海東有本見行錄中,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三 海東有本見行錄下로 구성되었다.

求得하였다.<sup>23)</sup> 그리고 귀국 후에 『教藏總錄』을 새로이 편찬하였다. 곧 의천의 『教藏總錄』은 고려의 현행 章疏에 더하여 입송구법 이후 중국에 유행하는 章疏를 종합 정리하여 새로운 목록을 편찬한 것이다. 의천이 『教藏總錄』을 新編하기 위하여 작성한 章疏 목록에는 고려에 존재하였고 現行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천의 『教藏總錄』은 內題 「海東有本見行錄」이라 하여 ‘無本, 非現行’은 수록 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며, 實在하고 現行한 章疏의 목록이었다.

의천은 『教藏總錄』 권1, 2, 3에 각각 「海東有本見行錄」 상·중·하를 配對하고 직접 集錄하였음을 기록하였다. 『教藏總錄』에 수록된 章疏는 經部 561부 2,704권, 율부 142부 469권, 논부 307부 1,692권 합계 1,010부 4,865권이다.<sup>24)</sup> 經部에서는 화엄경을 필두로 涅槃經, 法華經 등의 순서로 편성하였고, 經部에서 大華嚴經 177부 1,257권, 法華經 61부 236권, 大涅槃經 30부 207권, 金剛般若經 29부 73권, 首楞嚴經 27부 174권, 金光明經 25부 86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律部에서는 四分律, 十誦律의 부수와 권수가 梵網經이나 遺教經보다 많음에도 후반부에 배열한 것은 의천의 教學觀에 기초하여 梵網經, 瓔珞經, 遺教經을 선순위에 배열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教藏總錄』은 〈海東有本現行錄 上, 中, 下〉의 3門, 그 아래 경전명을 科目, 그 아래 장소명을 條目的 形式으로 정리하였다. 즉 教藏總錄에 수록된 章疏는 科條의 形式으로 경전명에 따라 모으고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教藏總錄의 체제는 智昇의 『開元釋教錄』의 〈有譯有本錄〉에 경전명, 권수, 저자명을 실고 있는 것과 유사하나, 章疏 목록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 經典의 소주제에 따라 群別 배열하는 등 독자적인 분류 체계와 배열을 하였다.

이상으로 『교장총록』을 통하여 고려 교장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구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교장은 현행 장소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모든 장소를 갖추었겠지만 초조대장경과 같이 모두 간본의 형태로 유통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교장의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그 주요 근거는 장소의 천자문 함차호가 없는 점이다. 그러나 흥왕사 교장도감이 교장 간행사업을 주관하면서 일부의 간본과 사본 章疏를 포함하여 一藏을 갖춘 것은 분명하다.

### 2.3 教藏의 刊行

의천은 고려와 중국에서 수집하고 구득한 章疏를 一藏으로 결집하여 교장을 구성하려 총목록을

23) 의천, 「上淨源法師書(추정)」 『대각국사문집』 권10 (『한국불교전서』 권4), 543.

“伏望大法師流通爲急 凡有古今諸家章疏 出目示之 貴得還鄉之日 集古今諸宗教乘 摠爲一藏 垂於萬世 導無窮機 返本還源 是其本願也。”

24) 「교장총록」의 부수와 권수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권수가 이중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합산한 차이로 보인다.

편찬하고 『新編諸宗教藏總錄』이라 名하였다. 의천의 『敎藏總錄』은 고려의 現行 章疏에 더하여 동아시아불교계에 유행하는 章疏를 수집하여 교장을 구성하고 목록을 편찬하였다. 의천이 新編하기 이전 목록에 수록된 章疏는 고려에 존재하였고 現行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천의 敎藏總錄은 內題 「海東有本見行錄」이라 하여 '無本, 非現行'은 수록 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며, 實在하고 現行한 章疏의 목록이었다.

교장의 간행은 국가적 사업으로 의천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의천의 교장 간행 사업에 대하여 기왕의 연구에서는 교장의 완간 여부와 간행 시기에 대한 이설이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외에 전하는 原刊本이나 중수본, 사본, 朝鮮時代 刊經都監에서 翻刻된 자료 등을 통하여 교장의 간행규모와 시기를 살펴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내의 現전 자료를 통하여 간행의 현황과 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1> 교장 간행의 現存 자료와 연도별 기록이다.

<표 1> 敎藏 刊行的 現存 資料와 所藏處

連番	『敎藏總錄』			現傳 章疏名	著者	年代	刊記
	卷別	經名	章疏名				
1	권1	大華嚴經	賢首伝一卷	唐大薦寺法藏和尚傳 卷第1	崔致遠述	1092	宣宗9(大安8)
2	권3	雜集論	疏十六卷	大乘阿毘達磨雜集論疏 卷第13,14 <sup>25)</sup>	玄範述	1093	宣宗10(大安9)
3	권1	般若心經	疏一卷	般若波羅密多心經疏	法藏述	1093	宣宗10(大安9) 天順6(1462)
4	권1	圓覺經	大鈔二十六卷 (或十三卷)	圓覺經大疏釋義鈔 卷第13	宗密述	1093	宣宗10(大安9) 天順6(1462)
5	권1	金剛般若經	疏一卷	金剛般若經略疏 卷1	智儼述	1094	宣宗11(壽昌元)
6	권1	大華嚴經	隨疏演義鈔四十卷 (或開爲六十卷徑 山寫本八十卷)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40卷	澄觀述	1094-1097	宣宗11-肅宗2 (大安10-壽昌3)
7	권1	法華經	贊述十卷	妙法蓮華經贊述卷第1,2,5,6	慧淨述	1095	獻宗元(壽昌元)
8	권1	維摩經	關中集解四卷	淨名經集解關中疏 卷第3,4	道液述	1095	獻宗元(壽昌元)
9	권1	大華嚴經	貞元疏十卷	貞元新譯華嚴經疏 卷第10	澄觀述	1095	獻宗元(壽昌元)
10	권1	盧遮神變經	演密十卷	大毘盧遮那成佛神變 加持經義釋演密鈔	覺苑述	1095	獻宗元(壽昌元) 天順6(1462)

25) 천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서울: 범우, 2012), 227. ; 『羅麗 印刷術의 研究』 (서울: 경인문화사, 1980), 92쪽에서 大乘阿毘達磨雜集論疏를 중수본으로 추정하 바, 이는 金剛般若經疏開玄鈔가 원간기와 중수기가 있어 對査하면 판식 및 자체, 지질, 표지상의 판각, 제침 등이 같은 점을 들어 간경도감 중수본으로 본다.

連番	『教藏總錄』			現傳 章疏名	著者	年代	刊記
	卷別	經名	章疏名				
11	-	-	總錄 不在	大方廣佛華嚴經談玄決擇卷第2-6	鮮演述	1096	肅宗1(壽昌2)
12	권1	圓覺經	禮懺略本四卷	圓覺禮懺略本 卷第1-4 <sup>26)</sup>	宗密述	1097	肅宗2(壽昌3)
13	권2	地持經	地持經義記十卷	地持論義記 卷第5下	慧遠述	1097	肅宗2(壽昌3)
14	권1	金剛般若經	開玄鈔六卷科一卷 (公哲述志蘊刪補)	金剛般若經疏開玄鈔卷第4,5,6	公哲述志蘊刪補	1098	肅宗3(壽昌4) 天順5(1461)
15	권1	金剛般若經	義記二卷	金剛般若經義記卷上,下	知恩(或作玄待勘)述	1098	肅宗3(壽昌4)
16	권1	大涅槃經	疏二卷(或一卷)	大般涅槃經疏 卷第9,10	法寶述	1099	肅宗4(壽昌5)
17	권1	法華經	三玄圓讀二卷	法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讀科文	思孝述	1099	肅宗4(壽昌5)
18	권3	釋摩訶衍論	贊玄疏五卷	釋摩訶衍論贊玄疏 권5	法悟述	1099	肅宗4(壽昌5)
19	권3	釋摩訶衍論	通玄鈔四卷	釋摩訶衍論通玄鈔 卷4	志福述	1099	肅宗4(壽昌5)
20	권1	法華經	玄論十卷	法華玄論 卷第3,4	吉藏述	1102	肅宗7(建統2)
21	권1	小阿彌陀經	通贊疏二卷	阿彌陀經通贊疏 卷3	窺基述	不明	不明
22	권1	法華經	傳十卷	弘贊法華傳 卷5,10	慧詳述	不明	不明
23	권3	瑜伽論	疏四十卷	瑜伽論疏 卷35,36	智周述	1462	天順6
24	권3	瑜伽論	義演四十卷	瑜伽師地論義演 卷15,16	清素述	不明	不明
25	권3	因明論	鈔八卷	因明入正理論疏鈔 卷5,6	雲儼述	不明	不明
26	권1	大華嚴經	章門雜孔目四卷	華嚴經內章門雜孔目 卷1	智儼述	不明	不明
27	권1	大華嚴經	指歸一卷	華嚴旨歸 卷1	法藏述	不明	不明
28	권1	圓覺經	大疏六卷(或三卷)	圓覺經大疏抄科1卷下	宗密述	不明	不明
29	권1	大華嚴經	論一百卷	華嚴經論 卷10, 51-56	靈辨述	不明	不明
30	권1	大涅槃經	圓旨鈔十四卷科五卷	大般涅槃經義記圓旨鈔卷13,14	[(工*几)/言]空述	1461	天順5
31	권1	大華嚴經	合論一百二十卷 (志寧將通玄論注於經下)	大方廣佛華嚴經合論卷10-12,40-42	志寧注	1462	天順6
32	권2	四分律	開宗記義鏡鈔二十卷	開四分律宗記義鏡鈔卷4上-下	行滿述	不明	불명
33	권1	金光明經	文句三卷	金光明經文句 卷下	天台說	1296	元貞2년
34	권1	大涅槃經	顯性錄四卷	金剛錚顯性錄 卷第3,4	智圓述	1461	天順5
35	권1	法華經	觀音品義疏二卷	妙法蓮華經玄義 卷第3,4	智者說	不明	不明
36	권1	法華經	會古通今鈔十卷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卷第1,2	詮明述	不明	不明
37	권1	法華經	文句記十卷	法華文句記 卷第5,6,7,8	湛然述	不明	不明
38	권3	成唯識論	了義燈七卷	成唯識論了義燈抄 卷第3,4	惠沼述	不明	不明

26) 천혜봉(1980, 137). 영남 개인소장서 권1-4를 조사, 권1-2는 소재 불명.

連番	『敎藏總錄』			現傳 章疏名	著者	年代	刊記
	卷別	經名	章疏名				
39	권3	成唯識論	義景鈔二十卷 (或十四卷)	成唯識論義景鈔 卷第12, 19	澹凝述	不明	不明
40	권1	仁王經	法衡鈔六卷科 二卷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卷第5,6	遇榮述	1092	大安8
41	권3	成唯識論	述記二十卷 (或十卷)	成唯識論述記 卷第627)	窺基述	不明	不明
42	권1	首楞嚴經	義疏注經二十卷	首楞嚴經義疏注經 卷第4-1,2	子璿	不明	不明
43	권1	仁王經	注四卷科一卷	注仁王護國般若經 卷第1-428)	淨源述	1095	추정
44	권3	俱舍論	頌疏鈔八卷	俱舍論頌疏鈔 卷1-8	常眞述	1462-3	天順6-7
45	권3	大乘起信論	筆削記六卷科文 一卷	起信論疏筆削記 卷3,4	子璿	1462	天順6
46	권2	四分律	刪繁補闕行事鈔 十二卷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 卷1,14	道宣述		天順5-7
47	권1	大華嚴經	大疏注經一百二十卷 (淨源移清涼大疏注於經下)	大方廣佛華嚴經疏一百二十卷 (淨源移清涼大疏注於經下)	淨源移	1085-1087 刻	
48	권3	十門和諍論	十門和諍論二卷	十門和諍論二卷	元曉述	不明	不明
49	권2	梵網經	持犯一卷 (十重戒序附)	菩薩戒本持犯要記一卷 (十重戒序附)	元曉述	不明	不明
50	권3	右繞行道破邪現正儀	右繞行道破邪現正儀一卷	右繞行道破邪現正儀一卷	靈鑑述	不明	不明

위의 <표 1> 교장 간행의 현존 자료는 원간본인 동대사의 『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를 비롯하여 3종,<sup>29)</sup> 중수본 및 번각본 45종 등 전체 50여 종으로 파악되며, 새로운 자료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원간본을 포함하여 유간기의 자료는 20종이며, 『敎藏總錄』에 수록되지 않은 『大方廣佛華嚴經談玄決擇』을 제외하면 19종이 된다. 기타 중수본 및 번각본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27종이다.

27) 남권희, “새로 發見된 高麗 續藏經의 覆刻本 3種에 관한 考察,” 『도서관학논집』 16(1989. 1)에서 嚴仁燮의 개인소장서인 圓覺禮懺略本, 金剛般若經義記와 함께 소개하였다. 『成唯識論述記』는 금산사 광교원 판본으로 교장 간행사업의 일환이라면 이중 간행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28) 천혜봉(2012, 223). 본문에 부분적으로 고쳐 새긴 교장의 흔적이 보이고, 결판으로 인한 보각이 권제34에 있는 후인본으로 조조시키는 현종이 왕위에 오른 1095년 이전으로 추정하였다.

29) 『貞元新譯華嚴經疏』, 『大方廣佛華嚴經疏』 권제10 등이다. 한편 원각본으로 『注仁王護國般若經』을 든 견해가 있다.

### 3. 敎藏의 歷史的 變遷

#### 3.1 敎藏의 淵源

교장에 대해서는 국내의 학자들에 의해 일찍이 연구되고, 정의되어왔지만, 그 연원이나 용례가 명확히 제시된 바 없다. 우선 의천이 교장을 조성한 전후시기에 사용 용례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참고된다.<sup>30)</sup>

- ① 現德五年己未八月日 摩訶岬藪 五敎章習時記 說主白雲房均如大大德 重副法膺法師 記者 聞泰寺理原法師 開泰寺敎藏付 現德七年庚申夏講時所說詮章記 說主 均如大師 僧記者惠藏法師 開泰寺敎藏付 法水寺藏中卷削方言釋記云 五冠山摩訶岬寺沙門 均如輒任法筵申鄙釋 峻豐三年壬戌均如大德 於法王寺長講說 師時所說義理章記 記者惠藏法師 雍熙四年 乙亥四月日 竟寫 開泰寺敎藏入 又本云峻豐三年壬戌 於京都法王寺 均如大大德夏講時所說下卷章記 副師心融法師 重副師僧標法師 記者僧造法師 重熙十一年 壬午十月 日 竟寫入光敎寺敎藏 此是 本講和尚所得敎分記中 均如聖師所傳 古義諸本標記也 皆落簡殘編 未得具本 又由記者 有巧拙取捨 有不同故 使諸本有多差別也 今錄于此 欲使後來 備知源起耳<sup>31)</sup>
- ② 二年 詔賜天台敎文入藏 及賜白金百兩 飯靈山千衆 慈雲撰敎藏隨函目錄 述諸部著作大義<sup>32)</sup>
- ③ 禪源諸詮集者 寫錄諸家所述 詮表禪門根源道理 文字句偈 集爲一藏<sup>33)</sup>
- ④ 圭峯禪師集禪源諸詮爲禪藏而都序之 河東裴休曰 未曾有也<sup>34)</sup>

의천 당대에는 敎藏과 禪藏이라는 용어가 모두 확인된다. 위의 자료 ①은 고려 광종대(949-975) 균여의 화엄교학 講學과 敎藏에 대한 기록이다. 이 때 균여의 강학 자료는 기록되거나 다시 필사되어 敎藏에 입장되었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사찰의 교장은 開泰寺敎藏, 法水寺藏, 光敎寺敎藏이다. 이로 보면 고려초 이래 일부 사찰에서는 敎藏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교장이 經·律·論의 大藏을 소장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經論의 주석서와 그것을 講釋한 講記를 포함한 것은 분명하

30) 落合俊典, 『中國·日本經典章疏目錄』(東京: 大東出版社, 1998), 317-327쪽에서, 일본의 고목록으로 平安末期의 書寫로 추정되는 『一切經論律章疏集并私記』가 있고, 또한 914년 圓超의 『諸宗章疏并因明錄』은 華嚴宗章疏并因明, 天台宗章疏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에서는 주로 '章疏'로 명칭되었으며, '敎藏'의 용례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31) 『釋華嚴敎分記圓通鈔』 권1, 『韓國佛敎全書』 권4, 270.

32) 志磐, 『仏祖統紀』 권1, 『大正藏』 49, 408.

33) 宗密, 『禪源諸詮集都序』 卷上之一, 『大正藏』 48, 399.

34) 裴休, 『禪源諸詮集都序敘』, 『大正藏』 48, 398.

다. 또한 세종의 사찰에서도 이러한 교장을 소유하였는데, 의천 당대 화엄종이 아닌 唯識의 韶顯(1038~1096)의 주도로 금산사 광교원에서 장소를 간행하였다.<sup>35)</sup>

더 나아가 『釋華嚴旨婦章圓通鈔』 卷下의 誌語에서는 ‘本講和尚 興王寺教學僧統天其 以甲午年 始住開泰寺 於古藏 搜得此本 乃八德山歸法寺圓通首座均如所說 而雍熙四年丁亥三月三十日 竟寫 入教藏本也(중략)辛亥五月日 弟子誌’<sup>36)</sup>라고 하였다. 이는 고려재조장의 조조 사업과 관련이 있는 守其가 均여가 강설한 것을 필사하여 교장에 입장한 『釋華嚴旨婦章圓通鈔』를 개태사의 古藏 즉 教藏에서 찾은 것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개별 사찰의 교장의 전통은 의천 당대로부터 고려 후기 1251년까지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세종의 교장 목록이 의천 당대에 『교장총록』으로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외의 자료로는 의천이 교류한 송나라 혜인원의 教藏이 확인된다. 『大覺國師外集』 권제9에 수록된 ‘大宋慧因院教藏記’와 권제12의 혜인원 관련 기록인 ‘源公 於前所居三處 各置賢首教藏(중략) 僧統亦捨銀 置教藏七千五百餘卷’이라 하여, 송승 정원이 화엄교장을 둔 것과 의천이 입송구법을 전후하여 교장을 건립하는데 조력하였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의 ②의 송의 천태종의 慈雲이 편찬한 『教藏隨函目錄』이 있었으며, 이는 의천이 입송구법시 보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분명치 않다.

한편 위의 자료 ③과 ④의 『禪源諸詮集都序』에서 중밋은 선문의 근원도리를 밝힌 글을 모아 一藏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都序를 쓴 裴休는 禪門의 一藏을 ‘禪藏’이라 칭하였다.<sup>37)</sup> 당시 고려에 이 禪藏 용어의 활용 사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의천이 이를 참고하였다면 선종을 의식하면서 교장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교장은 고려시대에는 대장경과 관련하여 經論의 理致를 發明하는 疏鈔 즉 불교 주석서의 총집으로 사용되고 이해되었다. 따라서 고려대장경의 성립이나 전개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또한 고려대장경과 달리 중국의 여러 대장경은 불전의 수록에 있어 불교 주석서 특히 중국 불교 찬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중국 성립 대장경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대장경의 정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大藏經이란 명칭은 隋나라 灌頂이 쓴 『隋天台智者大師別傳』에서 ‘大藏經十五藏’에서 비롯한 다.<sup>38)</sup> 기왕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대장경에 대하여 불전류의 一大叢書이고 一切藏經으로 이해하

35) 李顥, 『金山寺慧德王師碑』, 『한국금석전문』 중세상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544.

“師曾於金山寺 選勝于寺之南走六十許步地 創成一院 額號廣教 仍筆刻雕經板置于院… 自太康九年 至師之末年 搜訪慈恩所撰法華玄贊 唯識述記等 章疏三十二部 共計三百五十三卷 考正其本 募工開板.”

36) 『釋華嚴旨婦章圓通鈔』 권하, 『韓國佛教全書』 권4, 159.

37) 方廣錫, “關於禪藏與敦煌禪籍的若干問題,” 『藏外佛教文獻』 권1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1991, 1), 392.

38) 『隋天台智者大師別傳』, 『大正藏』 50.

“大師所造有爲功德, 造寺三十六所, ‘大藏經’十五藏, 親手度僧一萬四千餘人, 造施檀金銅素畫像八十萬軀, 傳弟子三十二人, 得法自行者不可稱數.”

였다.<sup>39)</sup> 任繼愈는 “대장경은 장경이라고도 하며 불교전적을 회편하여 만든 總集. 경을론을 위주로 하며, 약간의 인도, 중국 등의 기타 불교 찬술을 포괄한다. 원래는 한문불교전적을 의미하나 현재는 모든 문자로 된 불교 총집을 가리킨다.”<sup>40)</sup> 라고 하여 <중국불교찬술>을 포괄함을 지적하였다. 최근 方廣錫은 한문대장경은 “기본적으로 역대 한역 불전을 망라하고 아울러 그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며, 일정한 구성, 규범, 조직에 의거하며, 또한 일정한 외재 표지를 갖춘 한문불교전적 및 상관문헌의 총서”라고 정의하였다.<sup>41)</sup> 여기에는 중국 역외에서 전입된 모든 번역불전과 중국인이 편찬한 불교撰著를 포괄하고 있어 현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대장경의 정의는 경을론 삼장 위주의 불교전적의 총집이라는 견해에서 인도와 중국 등의 불교 찬술문헌을 포괄하면서 대장경의 내용, 편차, 구조까지 언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장경, 한문 대장경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이러한 정의가 고려시대의 대장경인 <고려대장경>에는 적용될 수 없다. 대장경의 한반도 수용에 있어 한국을 비롯한 중국 찬술문헌은 고려대장경에 입장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고려대장경과 기타 중국의 여러 대장경의 수록과 구성을 비롯한 정의는 상호일치하지 않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中國 諸種 大藏經 目錄에서 敎藏의 내용을 구성하는 불교 주석서를 어떻게 수록하고 조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교장의 연원에 대해 보다 추구코자 한다.

東晉의 말에 道安이 기존의 경전을 綜理하여 목록을 만들었지만, 大乘과 小乘의 分乘, 경과 율과 논이라는 부문을 나누지 않았다. 즉 이 시대까지 대장경의 용어나 개념은 정립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불교 주석서류도 목록에 편입되지 않았다. 이후 남북조시기를 거쳐 대·소승, 경·율·론으로 대장경의 조직이 갖추어졌는데,<sup>42)</sup> 隋 開皇17년 費長房이 勸錄한 『歷代三寶記』가 그것이며 卷13과 卷14가 入藏目錄이다.<sup>43)</sup> 이 목록의 조직은 대승록, 소승록으로 하고, 그 가운데 修多羅, 毘尼, 阿毗曇의 셋으로 나누었다.

이상의 구분에 따르면 대소승과 경을론으로 구분하였지만, 교장과 관련된 장소류는 여전히 수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歷代三寶記』에서 교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經錄은 『出三藏記集』이다. 여기에는 新集安公注經及雜經志錄第四, 出三藏記集序卷第六, 小乘迷學竺法度造異儀記第五,

39) 望月信亨, 『佛敎大辭典』에서 三藏 등 諸藏의 聖典을 포함하며 一切經, 一大藏經, 藏經, 大藏, 三藏聖敎라 칭함. 경을론 三藏이 중심이 되는 불교전적의 總集. : 大藏會編, 『大藏經-성립과변천』(京都: 白華苑, 1964), 5-6. ; 小野玄妙, 『佛書解說大辭典』 別卷 佛典總論 (東京: 大東出版社, 1936), 519.

40) 任繼愈主編, 『佛敎大辭典』(中國: 江蘇古籍出版社, 2002), 161.

41) 方廣錫, 『中國寫本大藏經研究』(中國: 上海古籍出版社, 2006), 10. : 『八-十世紀佛敎大藏經史』(社會科學院, 1991). ; 李際寧, 『中國版本文化叢書·佛經版本』(中國: 江蘇古籍出版社, 2002).

42) 小野玄妙(1936), 501.

43) 小野玄妙(1936), 522.

出三藏記集傳 등이 수록되어 있고, 이 가운데 衆經을 注한 『光讚折中解』, 『光讚抄解』 등 주해를 포함하고 있다.<sup>44)</sup> 이러한 注經 및 雜經志는 후대의 經錄에 나오는 〈此土聖賢集傳〉의 수록 대상이자 시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sup>45)</sup>

교장류의 본격적인 구분은 開皇 14년(594) 法經 등이 편찬한 『大隋衆經目錄』에서 비롯한다. 그 구분에 대한 시말은 다음의 서문에 상세하다.

지금 제가목록에 의하여 可否를 刪簡하고 綱紀를 總標한다. 9목으로 품류를 구별하여 42분한다. 처음 6목은 36분이며 經을 삼장의 대소승의 다름을 간략하게 보이고 전역의 시비와 진위의 구별을 대략 드러내었다. 뒤의 3목인 集傳記注에 대해 앞의 3분은 西域聖賢所撰으로 3장의 정경이 아니므로 별목으로 하였다. 뒤의 3분은 此方名德所修이며 비록 서역에서 지은 것은 아니지만 정경을 비찬하고 宗교를 발명하며, 전서를 밝게 빛내고 후학을 개진하므로 함께 신는다.<sup>46)</sup>

『大隋衆經目錄』은 처음으로 西域聖賢所撰과 此方名德所修를 〈集傳記注〉라고 하여 구분하였다. 이 구분 기준은 서역 성현의 찬술은 三藏의 正經이 아니므로 별록하였고, 중국의 차방명덕이 수찬한 것 역시 서역에서 지은 것은 아니지만 三藏의 정경을 보좌하고 가르침을 밝히며, 앞의 단서를 빛내고 후학을 열어준다고 하여 함께 수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의천의 교장 조성 의도와도 부합한다.

이러한 입장류의 성현집전 구분 수록은 唐代에도 이어져, 唐 顯慶 4년(659) 奉勅 書寫한 西明寺의 大藏經의 입장류인 『大唐內典錄』 권8에도 같은 구분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 입장류는 大乘과 小乘 經을론 그리고 聖賢著撰으로 구분되어있다. 그렇지만 이 聖賢著撰은 대부분 인도 찬술 관련이다. 이러한 교장류의 불전을 聖賢著撰으로 구분하여 經錄에 기록하는 전통이 계승되었고, 그 명칭은

44) 『出三藏記集』(『大正藏』 권55, 039b17).

“輒以洒掃之餘暇 注衆經如左 非敢自必 必值聖心 庶望考文時有合義 願將來善知識不咎其默守 冀抱盆爇火 謹有微益 光讚折中解一卷 光讚抄解一卷.”

45) 天監 17년(518)에 寶唱이 편찬한 『梁世衆經目錄』에는 注經, 數論, 義記 등이 수록되어있으며, 武平 연간(570-575)에 法上의 『齊世衆經目錄』에는 雜藏錄, 修多羅錄, 毘尼錄, 阿毘曇錄, 別錄, 衆經抄錄, 集錄, 人作錄의 명칭에서 장소류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 經錄은 조직에 있어 대소승 또는 삼장으로 나눈 것은 처음이나 철저하지 않고, 더 나아가 注經, 論, 義記 등도 수록되었지만 인도와 중국찬술로 명확히 구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5세기말 6세기초 經錄에 이미 장소류의 입목이 확인되므로, 대장경의 초기 형태인 衆經 단계부터 교장류가 입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46) 法經等, 『大隋衆經目錄』(『大正藏』 권55, 0148c07).

“今唯且據諸家目錄 刪簡可否總標綱紀 位爲九錄區別品類 有四十二分九 初六錄三十六分 略示經律三藏大小之殊 粗顯傳譯是非眞僞之別 後之三錄集傳記注 前三分者並是西域聖賢所撰 以非三藏正經故爲別錄 後之三分並是此方名德所修 雖不類西域所製 莫非昆贊正經 發明宗教 光輝前緒 開進後學 故兼載焉.”

대동소이하다. 이를 唐·宋代의 목록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唐靜泰衆經目錄』 雜藏 卽法苑法集高僧僧史之流是(『大正藏』第 55 册 No. 2148 衆經目錄)
- ② 『大周刊定衆經目錄』(大唐天后勅佛授記寺沙門明佺等撰) 大小乘三藏及聖賢著撰等(大正藏第55册, No. 2153 大周刊定衆經目錄)
- ③ 『開元釋教錄』 此方賢德撰集
- ④ 『貞元新定釋教目錄』 卷第二十九(入藏錄上) 圓照撰 聖賢集傳(大正藏第 55 册 No. 2157 貞元新定釋教目錄) 梵本齣出/此方撰集
- ⑤ 『大中祥符錄』 聖賢集傳翻譯著撰(西方聖賢集傳, 東土聖賢著撰)
- ⑥ 『景祐法寶總錄』 聖賢集傳華竺類例二(西域梵本翻譯一, 東土聖賢著撰二)

위의 목록 가운데 제경록의 모범이 되는 『開元釋教錄』에는 〈此方賢德撰集〉으로 구분하였고, 이는 『大隋衆經目錄』의 西域聖賢所撰과 此方名德所修로 구분한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된다. 貞元新定釋教目錄에서는 聖賢集傳, 貞觀 10년(794) 圓照의 『貞元續開元釋教錄』에는 經論疏義表錄,<sup>47)</sup> 大唐 保大 乙巳歲(945) 恒安이 撰集한 『續貞元釋教錄』에는 李通玄의 『華嚴論』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송대에는 北宋官版大藏經(開寶藏, 이하 北宋藏)이 『개원록』에 의한 5,048권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려초조대장경(이하, 초조장)은 이 북송장을 수용하여 조성한 것이다. 북송장은 최초의 조조 이후 신역경과 聖賢集傳著撰을 입장하는 補續 간행이 이루어졌다. 이후 송대의 경록에는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大中祥符錄』은 대중상부 6년(1013)에 北宋의 趙安仁, 楊億, 惟淨 등이 찬수한 신역입장록으로서, 太平興國 七年부터 大中祥符 8년(1015)까지의 譯成經 목록이다. 그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大乘經, 大乘律, 大乘論, 小乘經, 小乘律, 小乘論, 聖賢集傳翻譯著撰(西方聖賢集傳, 東土聖賢著撰)으로 藏乘과 聖賢集傳翻譯著撰으로 대분할 수 있다.

『景祐法寶總錄』은 宋 景祐 3년(1036)에 呂夷簡 등이 칙명을 받들어 찬술한 것으로 대중상부 이후부터 경우년에 이르기까지의 신역의 大小乘經律論 및 西方此土聖賢集傳 등의 서목을 수록하고 있다. 『景祐法寶總錄』에는 “聖賢集傳華竺類例二(西域梵本翻譯一, 東土聖賢著撰二)”라고 하였다. 교장과의 관련성을 갖는 것은 聖賢集傳의 東土聖賢著撰에 수록된 자료이다.

이상으로 교장의 내용적 연원에 대하여 중국의 대장경의 구분 기준으로 적용된 東土聖賢著撰의

47) 圓照 『大唐貞元續開元釋教錄』 『大正藏』 55.

“四朝應制 所翻經論 及念誦法 并修疏記碑表錄集等 總三百四十三卷 并目錄三百四十五卷 一百九十三卷經論 及念誦法 六十四卷 八十六卷貞元新集古今制令碑表(并目八十九卷.”

성립과 전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大隋衆經目錄』의 西域聖賢所撰과 此方名德所修로 구분한 이래 제경록에 반영되었으며, 중국 대장경의 모범이 되는 『開元釋教錄』에는 此方賢德撰集이라 하여 그 전통이 계승되었다. 특히 고려 교장이 참고하였을 『開元釋教錄』을 비롯한 송대의 경록인 『大中祥符錄』과 『景祐法寶總錄』에는 東土聖賢著撰으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교장류의 東土聖賢著撰이 중국 대장경에는 입장되어 전승된 반면, 고려대장경 조성시기에는 대장과 교장으로 분기하여 전승되었다.

### 3.2 고려시대 敎藏 認識의 전개

고려전기 의천(1055-1101)은 고려대장경 이외에 동아시아 불교계에 있어 독자적인 〈敎藏〉을 성립시켰다. 즉 『新編諸宗教藏總錄』이라는 目錄이자 入藏錄을 통하여 敎藏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에 있어 고려만의 大藏과 敎藏에 대한 독자적인 인식의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의천이 대장경을 간행하거나 주관한 기록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당시에는 대장경 불교의례인 大藏會 등 국가 불교 의례의 실행이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의천이 부왕인 문종대에 대장경의 續藏의 간행을 특기한 점으로 미루어, 대장경 雕造를 주관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법하다.

의천은 〈大藏〉에 대하여는 ‘正文’, ‘經과 論’으로, 〈敎藏〉에 대하여는 ‘疏鈔, 章疏’라고 표현하여, 대장과 교장의 구성과 내용을 구분하였다. 또한 〈篇次函帙 與三藏正文〉이라 하여, 대장경은 경전의 편차에 있어 함질로 배열하는데, 교장 역시 함질로 편차할 것을 계획하였다. 즉, 의천은 大藏과 敎藏을 명확히 분리하여 인식하는 한편 각각 一藏으로 갖추어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천의 〈대장과 교장〉의 분리 인식은 『교장총록』의 註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권2에 수록된 『刪補隨機羯磨』는 고려대장경과 『교장총록』에 모두 입장되어 있다. 『교장총록』 권2의 四分律 항목에는 “刪補隨機羯磨二卷 入大藏”이라 기록되어 있고, 이는 대장경에 입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천은 道宣의 『四分律刪補隨機羯磨』 二卷이 대장경에 입장되어 있음을 알면서 교장에도 입정한 셈이다. 이렇듯 고려중기 의천은 대장과 교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였고, 이는 당시 고려 불교계의 〈대장과 교장〉에 대한 분리 인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고려 전기와 후기의 교장의 인식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 丑 2> 北宋藏, 趙城藏, 高麗藏, 高麗教藏의 入藏 內容<sup>48)</sup>

區分 (入藏)	北宋藏		趙城藏	高麗再雕藏	高麗教藏
	構成	內容			
正藏	開元錄藏 經典	開元錄經	天(1)-英(480)	天(1)-英(480)	-
續藏 1 (982-999)	三藏正經	宋新譯經 <sup>①</sup>	杜(481)-穀(510)	杜(481)-穀(510)	-
	三藏正經 (續開元錄藏 經典) <sup>49)</sup>	廣品歷章, 續開元錄	振(511)-世(513)	振(511)-修(515)	-
		貞元錄經	祿(514)-磻(529), 時(534)-奄(537)	磻(529)-合(548)	-
		新譯華嚴經	溪(530)-佐(533)	策(521)-實(524)	-
	聖賢著撰 <sup>①</sup> (宋太宗製)	御製秘藏詮 等	并(616)-岱(620), 亭(624)	富(516)-輕(520)	-
	聖賢著撰 <sup>②</sup>	法苑珠林	起(593)-威(602)	霸(572)-何(585)	入藏
	聖賢著撰 <sup>③50)</sup>	宋高僧傳	非入藏	非入藏	非入藏
新譯大方廣忽持寶 光明經疏		非入藏	非入藏	非入藏	-
續藏 2 (1000-1078)	三藏正經	宋新譯經 <sup>②</sup>	宅(538)-號(580)	遵(586)-塞(628)	-
	聖賢著撰 <sup>④</sup>	傳燈玉英集	沙(603)-漠(604)	非入藏	-
		天竺字源	馳(605)	非入藏	-
		天聖釋教總錄	譽(606)	非入藏	-
		天聖廣燈錄	九(609)-禹(611)	非入藏	-
		祥符錄,景祐錄	跡(612)-群(614)	非入藏	-
		曹溪寶林傳	秦(615)	非入藏	-
		景德傳燈錄	禪(621)-云(623)	非入藏	-
		華嚴章疏類	鷄(629)-洞(639)	非入藏	入藏
		天台章疏類	崑(646)-畝(660)	非入藏	入藏
		法相章疏類	我(661)-勸(669)	非入藏	入藏
僧史略	非入藏	非入藏	非入藏	入藏	

48) 박용진, “高麗時代 大藏經 및 教藏 認識과 그 의의,” 『한국중세사연구』 42(2015, 8)를 중심으로, 유부현(2014), 134-136 ; 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教文化』 145(1984), 41 ; 蔣唯心, “金藏雕印始末考,” 『大藏經研究彙編』 上 (中國: 大乘文化出版社, 1977), 266쪽을 참고하여 高麗教藏을 포함하고 용어 및 구성 등을 재정리하였다.

49) 『天聖釋教總錄』 『趙城金藏』 제110책, “右準正元續開元釋教錄 四朝翻譯經論及念誦法讚錄等計一百二十五部 二百四十二卷二十四帙 并廣品歷章三十卷 本錄三卷 勒成三帙 附正元錄之首 已上總二百七十五卷二十七帙”. 고려재조장에는 廣品歷章 대신에 隨函錄이 수록되어 있고, 정원록의 앞에 붙인 점은 일치한다. 『教藏總錄』에는 詮曉集 『續開元釋教錄』이 수록되어 있다.

50) 聖賢著撰<sup>③</sup>은 金藏이나 高麗藏에도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각 北宋藏 續刊으로 간행되어 入藏 記錄이 있는 경전이다. 총 118卷 12帙이다.

區分 (入藏)	北宋藏		趙城藏	高麗再雕藏	高麗敎藏
	構成	內容			
續藏 2 (1000-1078)	聖賢著撰⑤ (景祐錄)	箋注御製聖敎序			-
		妙覺集			-
		注四十二章經, 注遺敎經, 百緣經序	非入藏	非入藏	入藏
		箋注御製述釋典文章			-
		御製三寶讚注			-
		莊獻明肅皇太后發願文注			-
續藏 3 (1094-1122)	三藏正經	宋新譯經③	鴈(625)-塞(628)	非入藏	
		華嚴經合論	踐(581)-刑(592)	非入藏	入藏
	聖賢著撰⑥	瑜伽師地論記	魚(678)-庶(681)	非入藏	入藏
		建中靖國續燈錄	非入藏	非入藏	-
		大藏綱目指要錄	非入藏	非入藏	-
續藏 4 未詳	聖賢著撰⑧	圓覺道場修證儀	丹(607)-青(608)	非入藏	入藏
		御注金剛般若經疏宣演	庭(640)	非入藏	入藏
		瑜伽師地論義演	賞(670)-史(677)	非入藏	入藏
		萬善同歸集	幾(682)	非入藏	-
續藏 5 未詳 <sup>51)</sup>	未詳	未詳	曠(641)-嚴(645)	非入藏	-

위의 <표 2>는 北宋藏, 趙城藏, 高麗藏, 敎藏의 入藏을 분석한 것이다. <北宋藏 正藏>은 경율문이 중심이 되며, 高麗藏의 근간이 되었고, 그 구성과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 北宋藏은 최초의 조성 이후 이루어진 신역경과 聖賢集傳著撰類는 황제의 칙허로 입장되어 正藏에 이어 續藏으로 간행되었다.

聖賢著撰①은 宋 太宗이 지은 祕藏詮, 逍遙詠 등이며, 삼장 正文에 해당하지 않지만 高麗藏에 입장되었다. 이는 <北宋藏 正藏>과 함께 수용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著撰②는 『法苑珠林』으로 高麗藏과 교장에 모두 입장되었다.<sup>52)</sup> 著撰③의 『송고승전』이 『교장총록』에 입장되어 있는데, 고려 대장경에는 입장되지 않고, 교장으로 분류되었으며, 『新譯大方廣惣持寶光明經疏』는 그 전분이 확인되지 않고 교장에도 입장되지 않았다. 또한 <續藏 2>의 著撰④와 ⑤는 장소, 목록, 전기 등으로 교장과의 상관성이 높다. 특히 중국의 대장경에는 입장되어 간행되었지만, 교장에만 입장한 것으로

51) 曠(641)-嚴(645)의 5권 金藏에서 缺失되어 그 경전의 내용이 未詳인 상태이며, 또 다른 7권은 金藏의 熟(666), 貢(667), 賞(670)-史(677), 魚(678)-庶(681)帙에 중복되어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려장 및 고려 교장과의 상관성이 없어 간략히 기재하였다.

52) 宋 咸平(998-1003) 初에 開寶藏의 續刊으로서 編入된 것이다. 입장시기는 不明.

고려대장경 편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려전기 大藏과 敎藏의 이원화는 고려초조대장경의 조조 관련 기록, 고려증기 의천 당대의 인식 등에서 살펴보았다.

고려후기 재조대장경 단계에 있어 대장과 교장의 인식은 再雕藏의 조성에 기초가 된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이하, 『교정별록』)을 편찬한 수기의 입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려재조장의 조조 시 고려에 유통된 대장경은 國本(고려초조장본), 宋本(北宋藏), 丹本(遼藏) 등이 있었다. 수기는 재조장 조조의 최종단계에서는 正藏만 入藏하고 聖賢著撰 즉 敎藏의 章疏類는 入藏하지 않았다. 특히 이른바 재조장의 『補遺目錄』도 대장도감에서 조조하였지만 대장에 입장하지 않은 채 사간관으로 현전하고 있다. 즉, 고려는 재조장을 조조하면서 다수의 장소류는 입장하지 않고 간행한 셈이다.

이 『補遺目錄』은 조선후기 海冥壯雄이 1865년에 조사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목록에 수록된 불서는 宗鏡錄, 南明泉和尚頂證道歌事實, 金剛三昧經論, 法界圖記叢隨錄, 祖堂集, 大藏一覽集, 禪門拈頌集, 十句章圓通記, 釋華嚴旨歸章圓通鈔, 華嚴經三寶章圓通記, 釋華嚴教分記圓通鈔, 禮念彌陀道場懺法, 慈悲道場懺法, 華嚴經探玄記, 大方廣佛華嚴經搜方齊通智九軌 등 15종이다. 그 밖에 현재 板本은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의 판으로 인출된 印本만이 현존하고 있는 大藏 및 分司都監의 판본으로 宗門摭英集, 重添足本禪苑清規, 天台三大部補註, 大顛和尚注心賦, 一乘法界圖圓通記 5종이 있다.<sup>53)</sup> 이 가운데 3종은 중국의 대장경에 입장되었는데, 『宗鏡錄』은 崇寧藏과 毘盧藏 등, 『大藏一覽集』은 資福藏, 『梁武慈悲道場懺法』은 永樂南藏에 입장되었으며, 기타는 모두 입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불서는 대장도감에서 조조되었지만 三藏正藏과 聖賢著撰이라는 전통적 기준과 기타 대장경에 입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조장 단계에서도 제외된 것이다.

고려 13세기에 교장의 인식은 분명치 않지만, 고려재조장 단계의 '대장과 교장' 인식은 수기 등 고려재조대장경의 조조 담당자의 입장태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재조장은 대장목록이 있어 전체의 규모를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표 2>에서 입장 현황을 정리하였다. 재조장은 초조장의 대장과 교장의 인식을 계승하는 한편 반영하였다. 더 나아가 재조장 조조 당시 다양한 禪籍類와 章疏類는 모두 入藏하지 않았다. 이렇듯 교장의 성립과 변천은 고려초조장과 재조장의 성립과 무관치 않으며, 당시 불교계의 대장과 교장에 대한 분리 인식을 반영한다.

53) 崔永好, 『江華京板『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8), 51-71쪽에서 경전의 구성체제와 그 성격을 정리하였다. 許興植, “高麗官板大藏經補板의 範圍와 思想性,”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論叢美 史學論集』(1988), 494-495.

#### 4. 맺음말

敎藏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동아시아의 불교장소를 수집하여 조성한 것으로 1090년에 편찬한 敎藏의 총목록이자 入藏錄인 『新編諸宗教藏總錄』에 그 규모가 상세하다. 『교장총록』에 대한 연구는 불교학, 역사학, 서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敎藏의 성립과 그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의의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결론을 대신코자 한다.

敎藏의 성립배경은 고려초기 이래 교선융합 경향이 있었고, 의천대에 화엄종 및 천태종으로 선종 사상을 융합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고려중기 불교계의 재편은 화엄종을 위주로 천태종을 개창하였는데, 이는 국왕권 강화를 꾀하던 宣宗에 의해 추진된 불교정책이었으며, 이러한 불교사상적 흐름 속에서 敎藏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의천의 교장 조성 동기는 대장경을 조성한 후 경전의 주석서에 해당하는 章疏를 갖추어 흥법함에 있었다.

의천이 모은 諸宗의 章疏를 一藏으로 갖춘 敎藏의 장소 수집은 문종 27년(1073)에 『代世子集敎藏發願疏』를 올리면서 시작하였고, 36세 되던 해인 선종 7년(1090)에 일단락되었다. 교장은 현행 장소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교장총록』에 입장된 장소는 一藏으로 갖추었지만 完刊 여부는 분명치 않다. 교장 간행의 현존 자료는 원간본인 동대사의 『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를 비롯하여 3종, 중수본 및 번각본 45종 등 전체 50여 종으로 파악된다. 원간본을 포함하여 유간기의 자료는 20종이며, 『敎藏總錄』에 수록되지 않은 『大方廣佛華嚴經談玄決擇』을 제외하면 19종이 된다. 기타 중수본 및 번각본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27종이다.

敎藏의 歷史的 變遷에 대해서는 교장의 용례 분석과 교장의 내용적 연원에 해당하는 자료를 중국의 대장경에 구분 기준으로 적용된 東土聖賢著撰의 성립과 전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大隋衆經目錄』의 西域聖賢所撰과 此方名德所修로 구분한 이래 제경록에 반영되었으며, 중국 대장경의 모범이 되는 『開元釋教錄』에는 此方賢德撰集이라 하여 그 전통이 계승되었다. 특히 고려 교장이 참고하였을 『開元釋教錄』을 비롯한 송대의 경록인 『大中祥符錄』과 『景祐法寶總錄』에는 東土聖賢著撰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교장류의 東土聖賢著撰이 중국 대장경에는 입장되어 전승된 반면, 고려대장경 조성시기에는 대장과 교장으로 분기하여 전승되었다. 고려 13세기에 교장의 인식은 분명치 않지만, 고려재조장 단계의 '대장과 교장' 인식은 수기 등 고려재조대장경의 조조 담당자의 입장태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재조장은 초조장의 대장과 교장의 인식을 계승하는 한편 반영하였다. 더 나아가 재조장 조조 당시 다양한 禪籍類와 章疏類는 모두 入藏하지 않았다. 이렇듯 교장의 성립과 변천은 고려초조장과 재조장의 성립과 무관치 않으며, 당시 불교계의 대장과 교장에 대한 분리 인식을 반영한다.

본고는 고려시대 교장의 조성이 동아시아불교계에 있어 그 입장록인 『교장총록』이 장소 목록의 효시인 점과 독자성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教藏의 역사적 변천은 용례를 통한 변천과 고려시대 전후기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에 〈大藏과 教藏〉으로 분기함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고려시대 불교주석서의 총집인 교장과 대장경에 대하여 동아시아한문불교문화권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天聖釋教總錄』, 『趙城金藏』 제110책.  
灌頂, 『隋天台智者大師別傳』, 『大正藏』 50  
均如, 『釋華嚴旨婦章圓通鈔』 권하 『韓國佛教全書』 권4, 159.  
金杜珍, “제3장 高麗時代 思想의 歷史的 特徵.” 『한국사상사대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38-143.  
金聖洙, “教藏總錄 經部 分類體系의 分析.” 『圖書館學』 10(1983).  
金聖洙, “의천, 세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영향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58(2014. 6).  
落合俊典, 『中國・日本經典章疏目錄』, 東京: 大東出版社, 1998. 317-327.  
남권희, “새로 發見된 高麗 續藏經의 覆刻本 3種에 관한 考察.” 『도서관학논집』 16(1989. 1).  
大藏會編, 『大藏經 - 성림과변천』, 京都: 白華苑, 1964. 5-6. ; 小野玄妙, 『佛書解説大辭典』 別卷 佛典總論, 東京: 大東出版社, 1936. 519.  
박용진, “高麗時代 大藏經 및 教藏 認識과 그 의의.” 『한국중세사연구』 42(2015. 8).  
朴鎔辰, “高麗中期 仁王經信仰과 그 意義.” 『한국중세사연구』 14(2003. 4).  
朴鎔辰,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 編纂과 華嚴 및 天台章疏.” 『中央史論』 22(2005. 2).  
方廣錫, “關於禪藏與敦煌禪籍의 若干問題.” 『藏外佛教文獻』 권1,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1991. 392.  
方廣錫, 『中國寫本大藏經研究』,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2006. 10. ; 『八-十世紀佛教大藏經史』, 中國社會科學院, 1991.  
裴休, “禪源諸詮集都序敘.” 『大正藏』 48, 398.  
法經等, 『大隋衆經目錄』 (『大正藏』 권55).  
서대원, “교장의 서명에 대한 시고.” 『書誌學研究』 67(2016. 9).  
僧祐, 『出三藏記集』 (『大正藏』 권55).  
圓照, 『大唐貞元續開元釋教錄』, 『大正藏』 55.  
유부현, 『고려대장경의 구성과 저본 및 판각에 대한 연구』, 서울: 시간의물레, 2014. 134-136.  
有誠, 『大宋沙門有誠書 二首』, 『대각국사외집』 권3 ; 『한국불교전서』 권4, 571.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序.” 『대각국사문집』 권1 ; 『한국불교전서』 권4, 528-529.

- 義天,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대각국사문집』 권15 ; 『한국불교전서』 권4, 553.
- 義天, 『代世子集敎藏發願疏.』 『대각국사문집』 권14 ; 『한국불교전서』 권4, 552.
- 의천, 『上淨源法師書(추정)』, 『대각국사문집』 권10 ; 『한국불교전서』 권4, 543.
- 의천, 『請入大宋求法表』, 『대각국사문집』 권5 ; 『한국불교전서』 권4, 534.
- 李顯, “金山寺慧德王師碑.” 『한국금석전문』 중세상.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 李際寧, 『中國版本文化叢書·佛經版本』, 中國: 江蘇古籍出版社, 2002.
- 林存, “仁同僊鳳寺 大覺國師碑.”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 서울: 伽山佛敎文化研究院, 1996.
- 蔣唯心, “金藏雕印始末考.” 『大藏經研究彙編』 上. 中國: 大乘文化出版社, 1977. 266.
- 淨源, 『大宋沙門淨源書 二首』, 『대각국사의집』 권2 ; 『한국불교전서』 권4, 570.
- 宗密, 『禪源諸詮集都序』 卷上之一. 『大正藏』 48, 399.
- 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敎文化』 145(1984). 41.
- 志磐, 『仏祖統紀』 권1, 『大正藏』 49, 408.
- 천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서울: 범우, 2012. 227. ; 『羅麗 印刷術의 研究』, 서울: 경인문화사, 1980. 92.
- 崔永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刊각사업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08.
- 許興植, “高麗官板大藏經補板의 範圍와 思想性.”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論叢美 史學論集』(1988). 494-495.

